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기옥·최규일·배지영¹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영남외국어대학 치위생과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Gi-Ok Jung · Gyu-Yil Choi · Ji-Young Bae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unnam Foreign Language College

Received : 24 September, 2012
Revised : 16 February, 2013
Accepted : 16 February, 2013

Corresponding Author

Gyu-Yil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15, Yeongsong-ro, Buk-gu, Daegu
702-722, Korea.

Tel : +82-53-320-1446,

+82-10-4856-3466

Fax : +82-53-320-1340

E-mail : edugy@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Dental Hygienic students'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their major and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on their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o that the key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help the university students to explore career related to their major and to assume rational attitude towards their career path.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450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ic at the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buk-do.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s based on the use of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1. Total grade of the Dental Hygienic students'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their major was $3.36 \pm .49$ points, while total grade of the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was $3.06 \pm .46$ points. In case of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total grade was $2.76 \pm .53$ points. 2. In case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their maj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lass, grade and motivation for admission. As for the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grade. 3.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demonstrated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their major manifested positive correlation.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manifested positive correl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4. As for the elements that affect Dental Hygienic student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y were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their major and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19.0%.

Conclusions : It should be necessary to study the elements that affect Dental Hygienic student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greater depth using diverse methods and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sense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so that the individual Dental Hygienic students can engage in detaile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r the sake of their career path.

Key Words : career search behavior, career search efficacy, dental hygiene,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색인 :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치위생과 학생

서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과 준비를 맞는 대학생들은 전공관련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세계를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¹⁾. 그러나 대학의 학과 선택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 전공에 대한 불만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중도 포기하는 양상 또한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²⁾.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³⁾로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⁴⁾. 또한 전공만족도가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진로탐색행동은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하다⁵⁾.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진로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기대감으로⁶⁾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자신감의 정도로 정의된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이나 직무적응을 위해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일련의 활동 개념으로 자신의 실습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전공에 대한 적응 및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¹⁾.

장⁴⁾은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고 문과 이⁷⁾도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과 진로관련 선행연구로는 전공만족도 조사⁸⁾, 정서적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⁹⁾ 진로계획과 직업관¹⁰⁾,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¹¹⁾ 등 진로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진로탐색활동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구체적인 진로탐색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4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주요 항목의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25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42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학년, 입학동기, 성적 3문항으로 성적은 A, B, C 학점 3등급으로 나누었다.

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심¹²⁾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교과만족요인 5문항, 관계만족요인 3문항, 일반만족요인 5문항, 인식만족요인 6문항, 진로조사요인 3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총 2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공만족도(Cronbach α = .903)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 척도는 최¹³⁾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직업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면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면접효능감' 5문항,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기회를 구하고 지원하는데 주변의 정보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직업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하는바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인적탐색효능감' 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grade	First year students	76	17,9
	Second year students	117	27,5
	Third year students	232	54,6
Entry motivation	Easy employment	207	48,7
	Expertise	108	25,4
	Family recommended	71	16,7
	Service	11	2,6
	Credit	12	2,8
	Others	16	3,8
Credit	High	115	27,1
	Middle	227	53,4
	Low	83	19,6
Total		425	100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탐색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진로탐색효능감(Cronbach α =.923)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의 척도는 최¹⁴⁾가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직업탐색차원 11문항, 자기탐색차원 9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위한 탐색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진로탐색행동(Cronbach α =.882)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8.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진로탐색행동과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들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학년이 17.9%, 2학년이 27.5%, 3학년이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입학동기로는 '취업보장'이 4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25.4%가 '전문직 특성', 16.7%가 '가족주변권유', 3.8% 기타, 2.8% 성적, 2.6% 소명감 및 봉사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적은 B학점 이상이 53.4%, A학점 이상이 27.1%, C학점 이하가 19.6% 순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5점 리커트척도, 1=강한부정, 5=강한긍정)에 대한 대상자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의 하위영역인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편으로 관계만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관계구축효능감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면접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탐색차원이 직업탐색차원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적에 따른 전공만족,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에 나타나는

Table 2. Subj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Variable	Categories	M	SD
Major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3.28	.54
	Relationship satisfaction	3.01	.70
	General satisfaction	3.37	.56
	Recognize satisfaction	3.78	.65
	Total	3.36	.49
Career exploration efficacy	Job search efficacy	3.06	.52
	Interview Efficacy	3.01	.52
	Relationships Building efficacy	3.15	.56
	Personal exploration Efficacy	3.04	.54
	Total	3.06	.46
Career exploratory behavior	Job exploratory-dimension	2.64	.64
	Self-exploratory-dimensional	2.87	.60
	Total	2.76	.53

바와 같이, 학년과 성적, 입학동기에 따라 전공만족에서는 취업보장과 전문성, 주변권유와 소명감과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고,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진로탐색효능감은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효능감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에서는 A학점이 B학점, C학점보다 진로탐색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진로탐색효능감($r=.31$), 진로탐색행동($r=.22$)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탐색효능감의 경우 진로탐색행동($r=.43$)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of subjects according to Grade, Credit, major satisfaction of entry motiva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Career exploration efficacy		Career exploratory behavior	
		M±SD	F(P)	M±SD	F(P)	M±SD	F(P)
Grade	First year	3.55±.44a	8.165	3.08±.40	.208	2.69±.44	2.48
	Second year	3.36±.50b	($<.001$)	3.08±.47	(.812)	2.70±.53	(.085)
	Third year	3.30±.48b		3.05±.47		2.81±.55	
	High	3.47±.55a	4.163	3.20±.50a	8.894	2.83±.56a	4.625
Credit	Middle	3.35±.44ab	($<.006$)	3.07±.40ab	($<.000$)	2.78±.51a	($<.003$)
	Low	3.27±.66ab		2.88±.47ab		2.62±.47ab	
Entry motivation	Easy employment	3.35±.48ab		3.03±.45		2.71±.51	
	Expertise	3.41±.48ab	2.490	3.15±.45	1.637	2.83±.54	1.137
	Family recommended	3.29±.49ab	($<.031$)	3.00±.43	(.149)	2.71±.56	(.340)
	Service	3.72±.41b		3.27±.52		2.95±.61	
	Credit	3.10±.43a		3.02±.59		2.75±.51	
	Others	3.35±.68ab		3.00±.60		2.82±.48	

1) Mean ± standard deviation

a, b: the results of Scheffe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Major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areer exploratory behavior
Major satisfaction	1		
Major satisfaction	.31**	1	
Career exploratory behavior	.22**	.43**	1

*p<.05 **p<.01 ***p<.001

5.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회귀분석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의 영역은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F=50.67$).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탐색효능감($\beta = .40$), 전공만족도($\beta = .10$)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공만족도 하위변인들은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F=6.617$).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진로조사와 관계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조사($\beta = .157$), 관계만족($\beta = .138$)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진로조사는 졸업 후 취업과 학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수록, 교수와 학생사이의 의사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져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은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F=25.564$).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면접효능감과 개인적탐색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는 개인적탐색효능감($\beta = .224$), 면접효능감($\beta = .153$)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중 개인적탐색효능감은 직업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하는바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Table 5.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exploration efficacy affecting career exploratory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_{adj}^2
	(Conantst)	1.00	.19		5.14***		
Career exploratory behavior	Major satisfaction	.11	.05	.10	2.23*	50.67***	.19
	Career exploration efficacy	.46	.05	.40	8.67***		

*p<.05 **p<.01 ***p<.001

Table 6. Sub-variables of major satisfaction affecting career exploratory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_{adj}^2
	(Conantst)	38.840	3.926		9.892***	6.617***	.062
Career exploratory behavior	Subject satisfaction	.146	.260	.036	.563		
	Relationship satisfaction	.715	.310	.138	2.311*		
	General satisfaction	.087	.281	.022	.311		
	Recognize satisfaction	-.010	.180	-.004	-.056		
	Career Survey	.894	.329	.157	2.716**		

*p<.05 **p<.01 ***p<.001

Table 7. Sub-variables of career exploring efficacy affecting career exploratory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_{adj}^2
Career exploratory behavior	(Conantst)	27,297	3,255		8,386***	25,564***	.188
	Job search efficacy	.086	.238	.024	.360		
	Interview Efficacy	.648	.270	.153	2,404*		
	Relationships	.389	.247	.100	1,573		
	Building efficacy						
	Personal exploration Efficacy	1,135	.374	.224	3,035**		

* $p < .05$ *** $p < .001$

인식이 높을수록, 면접효능감은 면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잘 보여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 성적, 입학동기 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총 평균이 3.36점이었고 이중 관계만족이 3.0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식만족이 3.78점으로 하위변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위생사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나 진로지도, 생활 상담 등을 통해 학생과 보다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와 최⁹⁾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정서적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학습풍토가 전공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간의 상호관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관계만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진로탐색효능감의 경우 총 평점이 3.06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면접효능감이 3.01점으로 가장 낮았고 관계구축효능감이 3.1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이나 개인적 능력에 관한 자기 탐색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면접시 탐색에 대해서는 효능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과 차원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 시에 면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의면접과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산업체 임상치과위생사와 현장근무의 소통의 장을 열어 진로선택에 활용함

으로써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최와 김¹⁵⁾의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¹⁶⁾, 유¹⁷⁾, Solberg 등⁶⁾의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¹⁶⁾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¹⁷⁾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 변량의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lberg 등⁶⁾의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결정욕구 변량의 19~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총 평점이 2.76점으로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탐색차원 2.87점, 직업탐색차원 2.64점으로 자기탐색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행동이 상담소나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한 탐색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위생과는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현실을 치위생과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직업탐색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년, 성적,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문과 이⁷⁾의 연구에서도 입학동기와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탐색효능감, 전공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진로탐색효능감이 강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Solberg 등⁶⁾, 최¹⁶⁾, 박¹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면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등¹⁹⁾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자기신뢰, 사회적 역할 수행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충북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위생과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치위생과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과 정보의 활용으로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켜 치위생과 개개인들이 자신의 진로를 향한 구체적인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다 자신과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치과위생사의 이직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자 대구, 경북,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4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최종 425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총 평점 3.36±.49점, 진로탐색효능감은 총 평점 3.06±.46점, 진로탐색행동 총 평점 2.76±.53점이었다.

2.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년, 성적, 입학동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진로탐색효능감($r=.31$ $P<0.01$), 진로탐색행동($r=.22$ $P<0.01$)은 전공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진로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r=.4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하위변인 중 진로조사와 관계만족 순이었으며,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는 개인적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학년, 입학동기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개인별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대학차원에서 학생생활상담소나 학내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치위생학과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다양과 방법과 정보의 활용, 개인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Kim HJ.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ungkyunkwan, 2007.
2. Yoon YR.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J Edu Cult 2007; 13(1): 123-168.
3.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KJC 2000; 1(1): 7-20.
4. Jang SC. An Analysis of Typ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KJ Counsel Psychol 2004; 16(3): 533-551.
5. Logue 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Doctor's thesis]. Knoxville: Univ. of Tennessee, 2005.
6. Solberg VS, Good GE, Fischer AR, et 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KJ Counsel Psychol 1994; 42(4): 448-455.
7.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 Nurs Acad Soc 2010; 16(1): 83-91.
8. Won YS, Jung M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ollege-Entrance Motivation to Satisfaction with Major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4; 4(2): 85-89.
9. Yu JS, Choi SY.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10; 10(5): 307-314.
10. Choi HN, Lee SY, Cho YS. Career Plan and Job View of the Would-be Graduates of Dep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11; 11(1): 7-14.
11. Ju OJ. Study of W Health Science College Dental Hygiene Students Course Consciousness. J Dent Hyg Sci 2006; 6(2): 119-125.
12. Sim ES. Gender, class, and major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and student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Kangwon: Univ. of Kangwon National, 2003.
13. Choi OH.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style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Docto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Women's, 2007.
14. Choi DS.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Docto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3.
15. Choi OH, Kim BH.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Style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Counsel 2007; 8(3): 947-965.
16. Lim, SM.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arch

-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level[Master's thesis]. Jeonju: Univ. of Chonbuk National, 2003.
17. Yoo JS,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Docto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4.
 18. Park ES, Influence of the father's attachment and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Doctor's thesis]. Seoul: Univ. of Hongik, 2008.
 19. Lee YS, Jang JH, Moon AE,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11; 11(5): 823-831.